

## 임신중절에 관한 드워킨의 가치 논변 연구\*,\*\*

김상득\*\*\*

### 요약

이 논문은 임신중절에 관한 드워킨의 가치 논변을 비판적으로 천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임신중절의 도덕성에 관한 지금까지의 두 논쟁, 즉 태아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물음과 태아-산모의 권리 상충 물음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두 물음에 관한 보수주의자들의 생명옹호론과 자유주의자들의 선택옹호론은 모두 태어나 임신중절에 관한 일상인들의 도덕적 직관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난점을 지닌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고자 제안된 이론이 드워킨의 가치 논변이다. 태아는 보수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권리나 이해관계를 지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신성불가침한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는 게 드워킨의 주장이다. 본래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임신중절의 도덕성에 관한 입장 차이가 발생한다고 그는 설명한다. 드워킨의 가치 논변은 일상인들의 도덕적 직관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임신중절에 관한 두 논쟁을 하나로 통합하여 설명하는 이론적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태아는 권리를 지니지 않고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는 그의 주장은 하나의 가설로 입증의 부담을 안고 있다. 또 그의 가치 논변은 다분히 자유주의적 입장으로 귀결하지만, 본래적 가치를 평가할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윤리적 상대주의를 함의하고 있다. 이러한 함의로 인해 그의 논변은 임신중절 물음에 관해 자신의 고유한 입장을 제시하고 않고, 이에 관한 입장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따름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그의 가치 논변은 임신중절 물음에 대해 일종의 열린 대답을 제시함으로, 응용윤리학 본래의 목표인 ‘도덕문제 해결’이 아니라, 다분히 ‘도덕문제의 분석’ 차원에 머물고 있다.

### 색인어

임신중절, 드워킨, 가치 논변, 여성주의, 태아의 도덕적 지위

교신저자: 김상득, 전북대학교 철학과, Tel: 063-270-3244, Fax: 063-270-3240, e-mail: ethics@jbnu.ac.kr

ORCID: <https://orcid.org/0000-0002-5650-8933>

\* 이 논문은 2018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이 논문은 한국의료윤리학회에서 “임신중절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 드워킨의 가치 논변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의과대학, 2018. 5. 25) 제목으로 발표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 전북대학교 철학과 교수

## I. 사람 논쟁과 임신중절

임신중절의 도덕성 물음은 역사적으로 ‘오래된(old)’ 논쟁이지만, 여전히 ‘살아있는(live)’ 논쟁으로 지금도 갑론을박이 계속 되고 있다. 1973년 미 연방대법원의 <Roe v. Wade> 판례와 그 후속 조치로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었다고 해서 임신중절을 둘러싼 윤리학적 논쟁이나 정치적 논쟁이 사라진 것이 아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결한다 해도 임신중절의 도덕성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지만, 도덕은 ‘법의 최소한’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도덕은 법률가의 입장이 아니라 입법가의 관점을 취한다. 따라서 도덕을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윤리학은 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

‘낙태’로 불리는 임신중절은 일반적으로 “임신 후 출생 전에 자궁 내 태아 생명을 의도적으로 중식시키는 일”로 정의된다[1]. 그러면 임신중절이 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재거(A.M. Jaggard)[2]는 도덕철학을 개인 윤리에 초점을 맞춘 윤리학과 제도 내지 공공정책의 윤리를 다루는 정치철학을 구분한 다음, 임신중절의 도덕성 물음을 그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세 차원으로 분석한다. 첫째는 태아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물음이고, 둘째는 임신중절의 도덕적 허용가능성을 묻는 개인 윤리 차원이고, 마지막 셋째는 공공정책 내지 제도와 관련된 정치철학의 차원이다. 그녀는 정치철학의 차원에서 임신중절 물음을 접근하지만, 필자는 ‘윤리학’ 차원에 관심을 갖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물음을 이 글에서 천착하고자 한다.

첫째 차원은 “태아가 언제 사람이 되느냐?”의 물음으로 일종의 ‘사람 논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반면에, 개인 차원의 윤리는 태아의 생명권과 산

모의 신체적 자율권 상충 물음으로 ‘권리 논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선 사람 논쟁에서는 태아는 수정 순간부터 사람이 된다는 극단적 입장에서, 출생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인간이 된다는 또 다른 극단적 입장이 있으며, 그리고 그 중간에 착상, 태동, 유정성, 의식, 체외생존가능성 등 다양한 기준점이 주장되곤 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a) 태아의 존재론적 지위 물음, (b) 태아의 도덕적 지위 물음, 그리고 (c) 태아의 인간 생명 시작점의 물음 등 서로 다른 세 차원이 관련되어 있다. 흄(D. Hume)이 지적한 존재와 당위의 구분을 받아들이면, 태아의 존재론적 특성으로부터 곧바로 도덕적 지위가 귀결되지는 않는다. 즉, 태아의 존재론적 지위에 관한 합의만으로 도덕적 지위에 관한 합의가 얻어지지 않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b)와 (c)도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심폐사/뇌사 논쟁에 관한 구분을 원용하면, (b)가 기준(criteria)의 물음이라면, (c)는 테스트(test)의 물음이다. (c)는 다분히 경험과학의 물음이라 할지라도 (a)와 (b)는 재거도 밝혔듯이, 형이상학적인 도덕 물음이다. 그래서 필자는 태아의 도덕적 지위 물음을 ‘윤리 형이상학(meta-physics of ethics)’의 물음이라 부르코자 한다. 왜냐하면 이 물음은 생물학적 사실이나 이성의 논리에 의해서도 그 참 거짓이 입증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물음은 다분히 세계관 내지 형이상학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누구에게 입증 부담의 책임이 있는가? 다음 두 가지 사실로 인해 입증 부담은 이를 부인하는 자에게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나는 우리의 상식적인 도덕적 직관으로 임신중절을 도덕 문제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도덕적 경험이고, 다른 하나는 태아는, 그리고 오직 태아만이 인간존재로 발달할 수 있다는 생물학적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태아의 도덕적 지위를 부인하는 자들이 태아

는 인간생명이 아니며, 따라서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태아의 도덕적 지위를 전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이다.

## II. 권리 논쟁과 ‘여성 윤리

“태아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로부터 곧 “임신중절은 도덕적으로 그르다”라는 도덕적 결론이 얻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바로 여기서 임신중절의 도덕적 허용가능성 물음이 개인윤리 차원에서 제기된다. 이를 우리는 윤리 형이상학적 물음과 대조하여 실천 윤리학의 물음이라고 부를 수 있다. 실제로 윤리학자들은 단순히 윤리 형이상학의 물음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태아의 도덕적 지위를 전제한 다음 혹은 이에 관한 물음은 괄호치고, 임신중절이 함의하는 도덕적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물음을 철학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었다. 즉, 태아의 도덕적 지위를 전제하게 되면 임신중절은 새로운 도덕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도덕적 지위는 생명권, 즉 죽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본질로 한다. 그리고 여성은 한 인간으로서 자기 몸에 대해 신체적 자율권을 지닌다.

물론 임신중절 시술자는 의사이고, 또 태아 죽임을 야기하지 않는 임신중절도 논리적으로 가능

하다. 즉, 4절에서 논의하겠지만, 의술이 발달하면 산모는 태아를 죽이지 않고 자신의 몸에서 태아를 제거하여 다른 여성 혹은 인공자궁에 이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리 논쟁을 야기하는 임신중절은 의도적인 태아 죽임을 뜻하고 또 이를 요구하는 자는 임신한 여성, 즉 산모이다. 그래서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신체적 자율권이 임신중절에서 상충하게 된다. 이 두 권리는 동시에 충족될 수 없기에, 임신중절은 도덕적 딜레마를 낳는다.<sup>1)</sup> 어느 한 권리에 우선성을 부여하지 않고서는 이 딜레마는 해결될 수 없다. 이러한 권리 논쟁은 크게 두 입장으로 대별된다. 한쪽 끝에는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한다는 생명옹호론(pro-life)이 위치하고, 다른 쪽 끝에는 신체적 자율권이 우선한다는 선택옹호론(pro-choice)이 자리 잡고 있다. 전자가 보수주의라면, 후자는 자유주의이다 [3].<sup>2)</sup> 그리고 이 양 극단 중간에 수많은 절충주의가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입장들은 사람 논쟁에서 ‘태아가 사람이 되는 시점’에 관한 입장과 결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수정 보수주의자들은 태아의 생명권에 우선성을 두지만, 사람 논쟁에서 태아는 수정이 아니라 착상 시점부터 사람이 된다고 주장한다.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생명권이 신체적 자율권에 우선한다. 따라서 권리 논쟁

1) 데이비스(N. Davis) [1] 역시 임신중절의 도덕성 물음은 서로 다른 두 문제로 구성되어 있음을 인정하지만, 후자 물음을 산모와 태아 관계 내지는 권리 딜레마보다 더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즉, 그는 도덕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가진 도덕적 의무나 자유, 및 도덕적 보호의 본성이 무엇이며 그 범위는 어떠한가에 따라 임신중절의 도덕성이 달라진다고 하면서, 도덕 공동체의 구성원에 산모와 태아는 물론이거니와 이미 태어난 자녀, 아버지 등도 포함시킨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이 두 물음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이제까지 우리는 전자의 물음이 후자 물음에 우선할 뿐만 아니라, 후자 물음과 독립적이라고 여겨왔다. 물론 논리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생각이 타당할지 모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후자 물음이 전자 물음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듯이, 전자 물음도 후자 물음과 자유로울 수 없을 만큼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그러니까 후자 물음에 대한 도덕권이 태아의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해할 경우 전자의 물음에 관한 불일치는 독립된 형이상학적 불일치가 아니라, 도덕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 개인 등에 관한 입장의 불일치 및 상호 간의 도덕적 책임과 의무에 관한 입장의 불일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2) 툴리(M. Tooley) [3]는 자유주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둘로 구분한다. 1. 인간 유기체의 죽음을 결과하는 임신중절은 그 자체로 일단 그르지 않다. 2. 임신중절은 모든 상황을 고려할 경우 그 자체로 그르지 않다. 전자는 임신중절이 그 자체로 그르지 않음을 주장하고, 후자는 임신중절이 그 자체로는 그르지만 다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르지 않다는 주장한다. 후자의 자유주의자들은 대개의 경우 여성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이 일어나지 말도록 결정하는 자는 여성 자신이어야 하기에 임신중절이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툴리는 후자의 입장은 건전하지 않다고 보면서 전자의 의미로 자유주의 입장을 주장한다.

에서도 입증 부담은 임신중절 옹호론자에게 있다. 그러면 태아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면서 선택옹호론자들은 어떤 근거에서 임신중절의 도덕적 허용을 주장하는가? 몇몇 논거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a. 정당방위 논증: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산모는 임신중절을 선택할 권리를 지닌다.
- b. 이중효과의 원리: 산모 생명이나 건강을 의도한 의학적 치료 과정에서 예견된 태아 죽음은 도덕적으로 허용된다.
- c. 딜레마 논증: 산모 생명과 태아 생명 둘 중 하나를 살려야 할 경우, 산모 생명이 우선하기에 임신중절이 허용된다.
- d. 선한 사마리아인 논증: 설사 태아가 생명권을 지녀도 여성은 과도한 희생을 통해 태아를 살려야 할 도덕적 의무는 없다.
- e. 프라이버시권: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통제권은 프라이버시권을 내포하기에, 임신중절은 이 권리 보호 차원에서 허용될 수 있다.

이러한 논증은 엄밀히 말해, 예외의 정당화 논변이지 임신중절 자체가 도덕적으로 옳다는 논변은 아니다. 즉, 임신중절의 도덕성 물음을 권리 차원에서 논의하게 되면 자유주의자들의 임신중절 선택 폭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어 생명옹호론인 보수주의가 윤리적으로 우위를 점령하게 된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임신중절의 도덕성 물음을 권리 논쟁으로 보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 이미 지적했듯이 권리 논쟁은 임신중절 물음을 생명권과 신체적 자율권 상충으로 해석하는데, 그 밑바탕에는 생명권의 주체인 태아와 자율권의 주체인 여성을 대결자로 간주하는 의도가 숨겨

져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권리 담론은 임신중절 선택권을 요구하는 여성들을 ‘나쁜 이기주의자’로 몰아가려는 ‘도덕적 비아냥거림’ 내지 ‘도덕적 조소’가 담겨 있다. 하지만 임신중절을 하는 여성도, 임신중절을 하지 않는 여성도 모두 태아를 존중한다. “태아는 어머니와 마주하고 있는 권리 대결자가 아니다. 태아와 어머니는 연결되어 있으며 그 누구보다도 상호의존적인 존재이다.”[4] 뿐만 아니라 권리 담론 자체가 이미 그 속에 도덕적 결론이 내포되어 있는 가치 담지적인 논의이다. 왜냐하면 특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권리보다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 ‘생명권’이 도덕적으로 우선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권리 담론은 남성 이데올로기에서 편향되어 있어, “또 다른 목소리로(in a different voice)” 임신중절 물음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여성의 목소리로 ‘여성 윤리’이다. 권리 담론은 성,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여성의 복잡다단한 경험과 고민을 담기에 역부족이다.”[5]

권리 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목소리’ 내에서도 ‘또 다른 목소리들’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여성 자체가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목소리의 다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여성의 어떤 목소리를 붙잡느냐에 따라 여성주의는 서로 다른 형태를 띠게 되고, 그에 따라 임신중절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여성의 ‘또 다른 목소리’는 크게 보면 무엇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여성적 윤리(feminine ethics)와 여성주의 윤리(feminist ethics)로 구분된다. 이 둘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4].

‘여성적(feminine)’은 현재 여성 특유의 목소리에 대한 촉구를 가리키며 흔히 양육, 보살핌, 동정심, 그리고 의사소통의 그물망을 포함

하는 보살핌의 윤리의 옹호를 지칭한다. ‘여성주의(feminist)’는 자유주의자건 급진주의자건 혹은 다른 입장을 갖고 있건 간에, 가부장적 지배에 반대하고, 동등한 권리와 희소한 자원의 정당하고 공정한 분배를 옹호하는 이론들을 지칭한다.

그러니까 여성적 윤리는 남성 중심의 권리나 정의의 개념보다 다른 여성 특유의 보살핌 내지 관계에 초점을 두고 도덕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female ethics’라면, 후자의 여성주의 윤리는 남성과 동등한 여성 평등권 내지 여성 해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gender ethics’라고 말할 수 있다. 필자가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목소리’는 이 둘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여성 윤리’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다고 여성 윤리가 사람 논쟁이나 권리 논쟁과 무관하다는 뜻은 아니다. 여성 윤리 접근법은 이 두 논쟁이 임신의 특수성을 온전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여성 중심의 관점에서 임신중절 물음을 천착한다. 실제로 이해정은 이러한 ‘여성 윤리’ 이론으로 자율성 이론, 평등 이론뿐만 아니라 보살핌의 윤리도 강조하고 있다[4]. 이 세 이론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a. 자율성 이론: 여성은 몸의 자기 소유권을 바탕으로 신체적 자율권, 프라이버시권, 생식의 자유 등을 이유로 임신중절을 선택할 자유를 지닌다.
- b. 평등 이론: 여성이 남성과 평등하게 대우받자면 생식의 자율권을 가져야 하며, 여기에는 임신을 중단할 권리마저 포함된 다.
- c. 보살핌의 윤리: 남성은 정의 중심의 윤리를 갖는 반면에 여성은 보살핌 중심의 윤리를 가지는데, 여성은 태아와의 상호의존성, 책임, 보살핌의 차원에서 임신중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임신중절의 도덕성에 관한 논의의 뿌리에는 사람 논쟁이 자리 잡고 있으며, 사람 논쟁의 토대 위에서 권리 논쟁과 여성주의가 주류를 이루어 왔음을 밝혔다. 물론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권리 논쟁은 생명옹호론의 보수주의를, 여성주의는 선택옹호론의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임신중절의 도덕성 물

<Table 1> 임신중절에 관한 윤리 지형도

	B1. 권리 논쟁	B2. 윤리 이론	B3. 여성 윤리
B. 실천 윤리학	a. 정당방위 논증 b. 이중효과의 원리 c. 딜레마 논증 d. 선한 사마리아인 논증 e. 프라이버시권	a. 공리주의 b. 공동체주의 c. 덕 윤리	a. 자율성 이론 b. 평등 이론 c. 보살핌의 윤리
A. 윤리 형이상학	사람 논쟁		
	a. 태아의 존재론적 지위 물음 b. 태아의 도덕적 지위 물음 c. 태아는 언제 사람이 되는가?		

음은 다른 윤리 이론의 관점에서도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공리주의, 공동체주의, 덕 이론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여기서 논의하지 못한 이러한 접근법마저 포함하여 임신중절의 도덕성에 관한 철학적 논의를 우리는 <Table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III. 드워킨의 가치 논변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임신중절의 도덕성에 관한 이러한 탐구는 태아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윤리 형이상학과 임신중절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에 관한 실천 윤리학으로 대별되고, 실천 윤리학에서는 권리 논쟁과 여성 윤리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 즉, 대체로 권리 중심의 접근법은 보수주의적 입장을, 그리고 여성 윤리 접근법은 자유주의적 입장을 주장한다. 반면에 이 둘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B2)의 공리주의, 공동체주의, 덕 윤리 등은 임신중절에 대해 단일의 입장을 개진하기보다는 상당히 유보적이어서 절충주의 입장을 견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입장 차이 근처에는 방법론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윤리학 방법론에서 권리 접근법은 연역주의 내지 하향식 접근법에 따라 생명권을 태아에게도 적용하여 보수주의를 주장하고, 여성 윤리 접근법은 귀납주의 내지 상향식 접근법에 따라 임신이 여성에게 갖는 의미에 도덕적 중요성을 부여하여 자유주의를 역설한다. 하지만 윤리 형이상학과 실천 윤리학에 관한 이러한 입장들은 우리의 상식적인 도덕적 직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난점을 지닌다. 윤리학계에서 가장 합당한 방법론으로 인정받고 있는, 하향적 접근법과 상향적 접근법을 통합하고 있는 존 롤스(J. Rawls)의 반성적 평형의 방법(the method of reflective equilibrium)에 따르면, 실천 문제에 관

한 어떤 도덕적 입장이 정당화되자면 도덕이론, 배경이론, 그리고 ‘숙고된 도덕 판단(considered moral judgement)’과 정합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권리 중심의 접근법이나 여성 윤리 접근법은 임신중절과 연관된 일상인들의 ‘숙고된 도덕 판단’과 정합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권리 중심의 생명옹호론자들은 대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임신중절을 허용하지 않는 강건 보수주의보다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 그리고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임신의 경우에는 임신중절이 허용된다는 온건 보수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예외는 우리의 상식적인 도덕적 직관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도덕적 직관은 생명권 일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무리 어머니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불가결하다 할지라도 이미 태어난 유아를 죽이는 일은 도덕적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권리에 근거한 보수주의 입장은 산모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도 임신중절을 허용할 수 없기에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러한 비판은 여성 윤리, 특히 자율권에 토대를 둔 자유주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자기 몸을 통제할 여성의 권리’가 태아의 생명권에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권리는 근본적으로 자유권에 그 토대를 두고 있는데, 자유권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계 내에서의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행위를 주장한다. 하지만 임신중절은 태아 죽음, 즉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기에 자유주의자들은 임신중절 선택권을 주장할 수 없다[6]. 게다가 자유주의자도 임신 후기의 중절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할 뿐만 아니라, 비록 임신 초기의 중절이라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꺼림칙하게 여긴다.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와 이러한 입장은 무

엇을 말하는가? 보수주의자의 예외 인정은 태아 생명권이 이미 태어난 인간의 생명권과 차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자유주의자의 도덕적 꺼림직함은 태아가 단순한 세포 덩어리가 아님을, 즉 정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임을 말해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아에 관한 두 가지 생물학적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 하나는 태아는 인간 유전자를 지닌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 종으로, 그리고 특별한 방해가 없는 한 인간으로 발달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라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태아는 아직 완전한 인간이 아닌, 인간으로 발달해가고 있는 과정적 존재라는 사실이다. 또한 임신중절에 관해서도 우리는 몇 가지 도덕적 직관을 갖는다. 우선 우리는 ‘피임/임신중절/유아살해’를 도덕적으로 다르게, 즉, 피임은 도덕적으로 허용되고 유아살해는 도덕적으로 금지되는데, 임신중절은 도덕적으로 피임과 다를 뿐만 아니라 유아살해와도 다르다고 생각한다. 또한 앞서 지적했듯이 강간 등의 경우 임신중절은 허용될 수 있으며, 또 임신중절에 대해 우리 모두는 도덕적 후회를 한다는 사실이다. 태아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합당한 입장은 이러한 우리들의 상식적인 도덕적 직관과 정합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보수주의자는 전자의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자유주의자는 후자의 사실만을 받아들이고 있다.

태아의 이러한 존재론적 특성 및 임신중절에 관한 우리들의 상식적인 도덕적 직관과 정합할 수 있는 도덕적 입장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우리는 안고 있다.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 물음에 해답을 주는 철학자가 드워킨

(R. Dworkin)이다. 이 숙제를 푸는 열쇠로 그는 「생명의 지배영역」이라는 책에서 ‘본래적 가치(intrinsic value)’ 개념을 끌어들인다[7].<sup>3)</sup> 본래적 가치 개념에 토대를 둔 드워킨의 임신중절 논변을 필자는 권리 논변과 대비하여 ‘가치 논변(value argument)’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그러면 그는 가치 논변을 어떻게 전개하는가? 우선 그는 임신중절에 관한 지금까지의 담론은 두 논변을 구분하지 못하는 지적 혼동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다. 물론 우리는 임신중절이 도덕적으로 나쁜 이유를 결과주의 내지 공리주의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는 임신중절 자체에 대한 반대로 보기 어렵다. 그러면 임신중절이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잘못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그는 두 가지로 분석한다. 즉, 하나는 태아가 생명권을 지닌다는 이유요, 다른 하나는 태아가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는 이유이다. 그는 전자에 근거한 반론을 ‘파생적 반대(derivative objection)’로 규정한 다음 후자에 근거한 반대를 이와 대조하여 ‘독립적 반대(detached objection)’라 부르면서, 이 둘의 구분을 강조한다 [7].

임신중절에 관한 그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자면 우리는 왜 그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또 이 둘의 구분을 강조하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태아는 이해관계를 지니고, 그로 인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인 생명권을 지니는데, 임신중절은 이 권리 침해를 낳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그르다는 것이 파생적 반대의 주된 논변이다. 이를 ‘파생적’이라 부는 이유는 이 반대 논변이 태아가 이해관계 내지는 권리를 지닌 존재로 전제하기

3) 참고문헌 7번에서 역자들은 abortion을 ‘낙태’로 번역하지만, 필자는 ‘임신중절’로 옮겼다. 또 이들은 ‘intrinsic value’를 ‘내재적 가치’로 번역하였지만, 필자는 윤리학에서 통용되고 있는 ‘본래적 가치’로 번역하고자 한다. 드워킨은 그 의미를 구분하지 않고 p. 153, 155, 157 등에서는 ‘inherent value’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우리는 ‘내재적 가치’로 옮길 수 있다. 하지만 번역서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내재적 가치’로 옮기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번역서를 참조하였지만 원서에 충실하게 재번역하였으며, 인용 쪽수도 원서 페이지임을 밝혀둔다.

때문이다. 반면에 독립적 반대는 태아의 이해관계나 권리를 전제하지 않고, 임신중절은 태아가 지닌 본래적 가치 자체를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두 논변 모두 건전한가? 태아가 권리나 이해관계를 지닌 사람이라는 전제 자체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파생적 논변은 잘못되었고, 독립적 논변만이 설득력이 있다는 게 드워킨의 지적이다. 임신중절에 관한 이러한 드워킨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태아는 이해관계나 권리를 지니지 않고 본래적 가치를 지니기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 실제로 그는 이 주장에 함의된 두 명제, 즉 “태아는 이해관계나 권리를 지니지 않는다.”라는 소극적 주장과 “태아는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는 적극적 주장을 옹호하는 데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앞서 밝혔듯이, 권리 논쟁은 두 물음을 야기한다. 하나는 태아는 권리가 부여될 수 있는 유형의 실재인가의 물음이고, 다른 하나는 산모의 권리와 태아의 권리가 상충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의 물음이다[6]. “태아도 권리를 지니는가?”의 물음은 “태아는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의 물음과,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태아는 인간인가?”의 물음과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동치이다. 따라서 권리 논쟁은 독립된 논쟁이라기보다는 사람 논쟁을 전제한다고 말할 수 있다. 드워킨은 임신중절 논쟁 근처에 놓여있는 이 근본 전제를 철학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우선 그는 이 문제는 ‘너무 모호한’ 문제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어느 편도 자신의 입장이 옳다는 것을 납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논증을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는 어떤 생물학적 사실이 발견된다거나 눈이 번쩍 뜨일 도덕적 비유가 고안된다고 해서 해결할 사안이다. 이것은 원초적인 확신의 문제이기여, 양쪽 편 모두 상대편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위

험천만한 화성인(incomprehensible but dangerous Martian)’으로 바라볼 따름이다[7].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태아는 이해관계 내지 권리 담지가 될 수 없기에 파생적 반대 논변은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본다. 사실 드워킨은 권리와 이해관계의 관계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그는 ‘권리에 대한 이해관계(interests of their own right)’, ‘권리와 이해관계(rights and interests)’, ‘권리 혹은 이해관계(rights or interests)’ 등의 표현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해관계로부터 권리가 파생되는지, 아니면 권리와 이해관계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지에 관한 그의 정확한 입장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하지만 파생적 반대 논변을 반박할 때 그는 주로 태아는 이해관계를 지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이든 어떤 형태로든 의식을 가지거나 가진 적이 있어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삶을 가지지 않은 이상 그것이 [그 자신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그것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것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르다[7].

임신중절이 태아의 이익에 반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임신중절이 행해지는 당시에 태아가 이익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달린 것이지 중절하지 않는다면 태아가 장래에 이익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달린 것이 아니다[7].

위의 두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태아가 이해관계를 지니지 않는 이유를 그는 두 가지로 설명한다. 하나는 미래의 이해관계와 현재의 이해관계 구분이다. 중절이 되지 않았다면 태아는 한 인

간으로 태어났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미래에 이해관계를 지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중절이 행해지는 당시에는 이해관계를 지닌 누군가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아는 원천적으로 이해관계를 지닐 수 없다는 게 드워킨의 주장이다. 드워킨이 이렇게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의식적 삶의 유무이다. 즉, 이해관계를 지니려면 의식해야 하는데, 태아는 아직 의식을 지니지 않기에 이해관계를 지닐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좋은 예로 그는 예술품의 비유를 사용한다. 조각 예술품은 이를 만든 조각가나 감상하는 미술애호가에게는 분명 이해관계가 존재하지만, 예술품 자체는 의식이 없기에 아무런 이해관계를 지니지 않는다. 이를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도 그대로 적용하여, 당근은 물론이고, 심지어 인간이 되는 과정에 있는 존재도 그 자체로는 의식이 없기에 이해관계를 지닐 수 없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의 예술품 비유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예술품처럼 태아도 그 자체로는 이해관계를 지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증해준다는 의미요,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예술품의 파괴가 왜 도덕적으로 꺼림직한지를 잘 설명해준다는 의미이다. 즉, 왜 우리는 로맹의 ‘생각하는 사람’ 조각품의 파괴를 나쁘게 여기는가? 드워킨은 조각품이 본래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태아가 비록 이해관계나 권리를 지니지 않음에도 우리가 임신중절을 도덕적으로 꺼림직하게 여기는 이유는 바로 태아가 본래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그러면 태아가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그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는 본래적 가치 개념을 ‘신성성(sanctity)’과, 그리고 신성성을 ‘불가침성(invulnerability)’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즉, 태아는 신성 불가침한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칸트(I. Kant)의 용어를 빌린다면, 그는 태아의 본래적 가치는 ‘요청된다(postulate)’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태아는 이해관계나 권리를 지니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주의자는 임신중절에 반대하고 자유주의자 역시 임신중절에 대해 도덕적 후회를 한다. 실제로 임신중절 선택을 강하게 옹호하는 리틀(M. Little) [8]은 임신중절이 도덕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임신중절은 손실을 내포한다. 즉, 여러 당사자들이 임신에 투여한 희망의 손실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어떤 것의 손실이 임신중절에 함의되어 있다. 따라서 임신중절은 진정한 문제이며, 이따금 슬픔과 후회와 같은 도덕적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다시 말해, 권리를 지니지 않는 태아인데 보수주의자는 무슨 근거에서 임신중절에 반대하고, 아무런 권리를 지니지 않는데 자유주의자는 왜 임신중절에 대해 도덕적 후회를 하는가? 이를 설명하자면, 이해관계나 권리가 아닌 또 다른 도덕적 고려사항이 요청되는데, 그것이 바로 본래적 가치 개념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즉, “내가 믿기에 임신중절에 관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념의 뿌리는 아주 초기 단계의 배아 생명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생명은 신성 불가침하다는 원칙이다.”[7]

본래적 가치를 전제하지 아니하고는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은 물론이거니와 자유주의자들의 이러한 도덕적 경험을 우리는 설명할 수 없다. 예술품이 인간생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래적 가치를 지니듯이, 태아도 인간생명이냐 아니냐의 물음과 상관없이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본래적 가치 개념은 임신중절의 도덕성에 관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설명하는 데도 상당한 장점을 지닌다. 즉, 임신중절에 관한 도덕적 입장이 극단적 보수주의에서 극단적 자유주

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그리는데, 도덕적 지위나 생명권 개념으로는 이를 설명할 수 없지만 본래적 가치 개념으로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생명권은 유무의 개념이지만, 본래적 가치 개념은 그 평가에 있어서 정도(degree)를 허용하기에,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임신중절의 도덕성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 정도의 평가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그래서 이미 현존하는 인간과 거의 동등할 정도의 신성성을 지닌다고 여겨 임신중절에 반대하는 반면에, 여성주의자들은 신성성의 정도를 낮게 평가하여 여성이 임신중절을 선택할 상당한 자유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여성주의자들 가운데 생명옹호론자들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이러한 본래적 가치 내지 신성성에 근거한 임신중절의 도덕성 논의는 임신중절 관련 법 규정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즉, 임신중절에 관한 법 규정도 나라마다 다른 이유는 태아의 신성성에 관한 평가는 각 나라의 문화나 전통 혹은 종교 등에 의해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태아의 본래적 가치 인정은 여성주의자들에게 이미 발견된다고 그는 해석한다. 예를 들어, 맥키넨(C.A. Mackinnon)은 <Roe v. Wade> 판결의 윤리학적 토대가 된 프라이버시권에 근거한 자유주의자들의 임신중절 옹호는 임신한 여성과 태아 사이의 독특한 관계 및 여성 경험을 무시한다고 하면서 여성의 관점에서 임신중절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드워킨은 그녀의 논변을 소개하면서 - 물론 여성주의자들에 대한 그의 해석이 과연 합당한지의 물음은 남아있지만 - 그녀의 공적을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중요한 문제는 임신중절이 본래적인 중요성을 지닌 어떤 대상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것인가 그리고 언제 훼손하는가의 물음이 되고, 맥키넨의 입장은 새로운 인간생

명의 내재적인 중요성은 그것을 창조하는 행위의 의미와 자유에 달려 있을 것이라는 괄목할 만한 쟁점을 제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7] 간단히 말해, “여성주의자들은 태아가 그 자체로 도덕적 권리를 지닌 사람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태아가 도덕적 결과의 한 창조물(a creature of moral consequence)이라고 주장한다.”[7] 드워킨은 여성주의자들의 이러한 생각은 “인간생명은 본래적으로 가치를 지닌다.”는 우리들의 직관과도 부합한다고 본다.

그러면 우리의 이러한 직관을 그는 어떻게 옹호하는가? 태아의 본래적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 그는 가치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구분을 한다. 우선 그는 가치의 근원과 관련하여 수단적 가치, 주관적 가치, 그리고 본래적 가치를 구분한다. 수단적 가치(instrumental value)란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말하며, 주관적 가치(subjective value)란 객관적 가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그것을 얼마나 욕구하는가에 달려있는 가치를 말한다. 주관적 가치를 그 당사자에게 지닌다는 의미에서 그는 개인적 가치(personal value)라 부르기도 한다. 반면에 본래적 가치란 목적과 상관없이, 그리고 사람들의 원함이나 필요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그것 자체로 지니는 가치를 말한다. 수단적 가치나 주관적 가치 차원에서만 바라보면 임신중절에 대한 여성들의 도덕적 후회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태아가 수단적 가치를 지니려면 목적을 지녀야 하고, 또 주관적 가치를 지니려면 욕구나 필요를 지녀야 하는데, 태아는 의식이 없기에 그러한 목적이나 욕구를 아예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태아가 본래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고는 임신중절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후회를 설명할 수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둘째로 그는 본래적 가치를 다시 두 범주로 구분한다. 즉, 본래적으로 가치 있

는 것들은 더 많이 가질수록 더 좋게 되는 ‘누적적으로 가치 있는(incrementally valuable)’ 것들과, 이와 달리 수나 양과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본래적 가치를 지니는 것들이 있다. 전자의 누적적 가치와 비교하여 그는 후자를 신성한 가치 또는 불가침적 가치(sacred or inviolable values)라 부른다. 한 예로, 대부분의 지식은 누적적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예술품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예술품에 대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느냐와 상관없이, 단 하나의 작품만 존재해도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 생명 역시 단 한 명이라도, 그리고 단 한 번만 존재하였다 해도, 그 생명은 본래적으로 가치를 지닌다.

셋째로 그는 신성한 가치를 지닌 것들을 “어떻게 신성시되는가?”의 물음을 기준으로 다시 둘로 구분한다. 즉, 그는 신성화 과정을 ‘연관 내지 지정(association or designation)’에 의한 것과 ‘역사(history)’에 의한 것을 구분한다. 전자의 좋은 예는 국기이다. 국기의 가치는 주관적이거나 도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적적이지도 않다. 하지만 국기가 가치를 지니는 것은 국가가 지정했기 때문에, 혹은 국가와의 연관성 때문이다. 반면에 다른 예로써,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은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에 혹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창조의 과정들(process of human creation)’을 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이런 점에서 예술 작품의 본래적 가치 내지 신성불가침성은 연관적이지 않고 발생론적(genetic)이다[7]. 드워킨은 동물의 종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논리로 그 가치를 설명한다. 즉, 우리들은 개별 동물 종을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의인화하여 ‘창조적 예술가로서의 자연(nature as creative artist)’의 저작물로 여긴다.

“태아란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지금까지의

드워킨 논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 근본 전제는 권리 내지 이해관계와 가치의 구분이다. 태아는 이해관계나 권리를 지니지만 않지만, 가치를 지닌다. 그러면 태아가 지닌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수단적 가치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그 자체로 갖는 본래적 가치이다. 태아의 본래적 가치는 지식과 같은 누적적 가치와 달리, 예술품과 같은 신성불가침의 가치로 일단 존재하기만 하면 그 자체로 지니는 가치이다. 그러면 태아는 왜 그리고 어떻게 본래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가? 태아의 신성한 가치는 연관적이지 않고 역사 발생적이다. 역사 발생에는 두 차원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인간 창조요 다른 하나는 자연창조이다. 미술품은 인간창조의 좋은 예요, 개별 동물 종은 자연창조의 예이다. 태아는 인간창조와 자연창조의 결합물로서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발달한 인간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자연적 창조의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술을 경외하는 이유가 되는 숙고적인 인간 창조력의 결과물이다.”[7] 그리스어의 구분으로 설명한다면, 인간생명은 단순히 물리적인 혹은 생물학적인 생명인 ‘zoe’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동안 살아온 행동, 결정, 동기, 사건 등으로 이루어진 인생이력서(biograph)로서의 ‘bio’까지도 의미한다. 이로써 우리는 본래적 가치를 지닌 인간존재의 파괴가 왜 도덕적으로 그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렀다. 즉, 임신중절은 자연창조와 인간창조의 합작품으로 본래적 가치를 지닌 태아를 파괴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그른 것이다. 여기서 드워킨은 다시 한 번 어떤 대상의 존재 자체와 그 대상이 존재하게 된 과정을 구분한다. 즉, 본래적 가치를 지닌 대상, 예를 들어, 미술품이나 동물 종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경악하는 것은 그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대상이 존재하게 되는 데 있어서의 인간 내지 자연

이 투여한 창조적 노력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창조적 투자의 낭비를 후회하는 것은 그 대상을 우리가 더 이상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대상의 생성과정에 투여된 위대한 노력이 좌절되는 것이 나쁘기 때문이다.”[7]

이미 암시되었듯이, 그의 본래적 가치 내지 신성성 개념은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 하나는 투여된 자연적 창조력과 인간적 창조력의 다르기 때문에 신성성에도 정도가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신성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선택적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같은 노력이 들어가도, 우리는 자동차가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거나 신성성을 지닌다고 말하지 않는다. 물론 드워킨의 이러한 주장은 신성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그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의 물음을 낳는다. 이 물음에 대해 그는 생명의 신성성에 대한 우리들의 신념은 아주 복잡하여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원칙(a single overarching principle)’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미 지적하였듯이, 인간생명은 도덕적으로 아주 중대한 두 종류의 창조적 투자, 즉 인위적 양태의 투자와 자연적 양태의 투자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임신중절에 관한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의 입장 차이는 인간생명의 신성불가침성 형성에 투여된 자연적 기여와 인위적 기여의 상대적인 도덕적 중요성을 다르게 평가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우리는 얻게 된다. 보수주의자들은 자연적 기여에 도덕적 중요성을 부여하여 임신중절에 반대하고, 자유주의자들은 인위적 기여에 도덕적 중요성을 부여하여 임신중절에 찬성한다. 하지만 생명의 신성성을 평가할 하나의 원칙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좌절의 다양한 양태나 종류들을 신중하게 저울질하여 모

든 구체적인 사례에 적합한 결정을 내려주는, 임신중절의 도덕성에 관한 하나의 일반 이론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7].

#### IV. 드워킨의 가치 논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일단 보통 사람들의 상식적인 도덕적 직관을 회복시키고자 한 그의 가치 논변은 ‘구름 위의 철학’이 아닌 ‘땅 위의 철학’으로 존중받아 마땅하다. 실제로 그는 ‘밖에서 안으로(from the outside in)’의 철학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from the inside out)’의 철학을 역설한다[7]. 여기서 ‘안’은 도덕문제를, 그리고 ‘밖’은 윤리이론 내지 윤리원칙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의 관계에 관해, 원리나 이론을 확립한 다음 그 원리나 이론을 현실 문제에 적용시켜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법을 우리는 종종 사용하는데, 이것이 전자의 ‘밖에서 안으로의 철학’이다. 그러나 드워킨은 이와 반대로 ‘안에서 밖으로’의 철학을 강조한다. “법은 임신중절이나 안락사마저 허용해야 하는가, 허용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허용할 것인가와 같은 실천적 문제에서 시작하여, 이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일반적인 철학적 또는 이론적 이슈들을 대면시켜야 하는가를 우리는 물을 수 있다.”[7] 그가 ‘안에서 밖으로’의 철학을 강조하는 이유는 윤리이론이나 도덕원칙의 선정과 관련 있다. ‘밖’의 우선성은 임의성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응용윤리학의 도덕문제는 대개 관련성 물음(relevance problem)과 갈등 물음(conflict problem)으로 구분되는데, 전자의 물음이 후자 물음보다 논리적으로 선행한다. 달리 말해, 관련성 물음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갈등 물음의 양상이 달라진다.

그러면 관련성 물음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즉, 우리가 직접 마주하고 있는 실제적인 도덕문제의 분석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실제적인 도덕문제에 관한 일상인들의 상식적인 도덕적 직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도덕이론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실제로 그는 두 가지 도덕적 직관을 든다. 하나는 자유주의자는 물론이고 보수주의자들도 강간이나 근친상간, 혹은 산모 건강을 이유로 한 임신중절에 찬성한다는 직관이고, 다른 하나는 보수주의자는 물론이고 자유주의자들도 임신중절에 대해 ‘도덕적 후회’를 한다는 직관이다. 태아의 생명권에 근거한 보수주의 입장이나 여성의 신체적 자율권 내지는 여성해방을 근거한 여성주의 입장 모두 이 두 직관을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그는 본래적 가치 논변을 들고 나왔다. 실제로 그의 가치 논변은 임신중절에 관한 입장 차이를 설명하는데도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그의 ‘안에서 밖으로’의 철학은 응용윤리학 방법론에서 단순한 상향적 접근법이 아니라 일종의 반성적 평형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안에서 밖으로의 철학’ 방법론에 따른 그의 가치 논변은 ‘단순성의 원칙’에도 충실하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임신중절 논쟁은 두 물음 즉, 태아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물음 및 태아와 산모 갈등의 물음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를 ‘본래적 가치’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여 논의한 점은 그의 창의적 시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드워킨은 임신중절 논쟁을 태아의 본래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게 함으로서 태아가 인간이냐 아니냐와 같은 윤리 형이상학의 난제를 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 대 태아의 대결’이라는 ‘나쁜 구도’에서도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면 그의 가치 논변은 임신중절의 도덕성 물음을

해결하는가? 그렇지는 않다. 그는 자신의 가치 논변이 임신중절의 도덕성에 관한 심오하고도 영구적인 입장 차이를 종식시켜주지는 않음을 겸허하게 인정한다. 즉, 그는 보수주의자나 자유주의자와 달리 임신중절의 도덕성에 관해 단일의 입장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본래적 가치의 눈으로 임신중절을 바라보게 되면 임신중절에 대한 입장 차이가 근본적으로 ‘영적(spiritual)’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우리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그는 자부한다.

이런 면에서 보면 그의 가치 논변은 해결이 아니라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 달리 말해, 그는 임신중절이 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분석윤리학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지, 응용윤리학의 관점에서 도덕문제에 관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는 임신중절의 근본 물음인 태아의 도덕적 지위 물음과 태아와 산모의 갈등 물음을 본래적 가치 물음으로 하나로 통합시킨 장점을 갖지만, 본래적 가치 개념 역시 도덕적 지위 물음과 갈등 물음이 내포하고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본래적 가치의 물음 역시 근본적으로 입증이나 추론(reasoning)이 아니라 직관(intuition)의 문제로, 태아가 인간이냐의 물음 못지않게 형이상학적이어서 합당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도덕문제의 변형이지 결코 도덕문제의 해결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고 그가 도덕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는 자연의 창조력과 인간의 창조력에 관한 상대적인 도덕적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임신중절의 도덕적 허용가능성 여부가 달라진다고 말한다. 이런 점에 있어서 그의 논변은 인간생명에 대해 미래 지향적 가치가 아니라 과거 지향적 가치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그는 생명

의 신성성에 관한 우리의 공통된 헌신(common commitment to the sanctity of life)을 강조하지만, 한 생명이 앞으로 영위하게 될 미래 가치가 아니라 그 생명에 대해 이미 투입된 창조력에 도덕적 우선성을 두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신성성을 형성하는 두 요소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의해 임신중절의 도덕성이 결정된다는 뉘앙스를 풍길 뿐만 아니라 이미 태어난 생명, 예를 들어 산모나 그 자녀들에게 도덕적 우선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그의 후속 저작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나 자신은 낙태가 어떤 단계에서 이루어지든 모든 인간의 생명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지 못할 때 도덕적으로 잘못이며, 그렇기 때문에 낙태의 도덕적 옳음이나 그름은 주로 동기에 의존한다고 믿는다.”[9] 물론 그는 어떤 동기 때문에 임신중절이 잘못된가의 문제와 그것이 잘못이라면 국가가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 올바른지의 문제를 구분하지만, 위 인용문은 임신중절의 도덕성이 동기와 연관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면 어떤 경우, 낙태가 인간생명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가? 그는 두 여건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아이의 삶이 좌절스러운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태아 출산이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 산모나 이미 자라고 있는 다른 자녀의 삶에 재앙을 가져다주리라 예견되는 경우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그의 가치 논변은 임신중절이라는 도덕문제에 대해 ‘열린 대답(open answer)’을 제시하는데, 그 대답은 다분히 ‘여성주의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도덕문제 해결이라는 실천적 관점에서 그의 입론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그의 논변은 이론적으로도 몇 가지 난점을 지닌다. 우선 그의 근본 주장은 하나의 가설이지 논증된 것이 아니다. 자신의 논변이 하나의 가설임을 「자유주의적 평등」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초기 태아는 아

무런 이해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가설 아래서 내가 구분하는 두 번째 차원에서의 도덕적 문제(파생적 가치가 아니라 독립적 가치의 문제)를 고찰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9] 가설로서 그는 태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근본 주장을 한다. 즉, 태아는 이해관계나 권리를 갖지 않고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우선 “태아가 본래적 가치를 지니느냐?”의 물음은 “태아가 인간이냐?”의 물음 못지않게 윤리 형이상학적이다. 이 가설은 우리의 상식적인 도덕적 직관과 잘 부합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이해관계나 권리에 관한 ‘특정’ 이론을, 그리고 본래적 가치에 관한 ‘특정 이론’을 전제하지 않고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그러니까 반성적 평형의 방법에 충실하자면, 윤리이론과 상식적인 도덕적 직관의 정합만을 주장해서는 아니 되고, 배경이론과의 정합마저 드워킨은 밝혀야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자신의 도덕이론과 정합적인 권리론이나 가치론을 전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는 권리를 지니려면 이해관계를 지녀야 하고, 이해관계를 가지려면 의식적인 욕구를 지녀야 한다는 조엘 파인버그(J. Feinberg)의 권리론을 전제하고 있다. 톨리 역시 의식, 이해관계, 권리에 관한 이러한 도덕이론을 받아들여 임신중절을 옹호한다[3].

하지만 왜 우리는 의식적인 욕구의 지님을 이해관계의 선결요건으로 전제해야 하는가? 의식은 이해관계의 충분조건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의식이 이해관계의 필요조건이라는 주장은 너무 강한 입장으로 견지되기 어렵다. 대개의 경우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의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번영과 성숙이라는 이해관계를 지닌다[10]. 여성주의자 재거(A.M. Jagggar) [11]도 태어나지 않은 존재(the unborn)도 이해관계를 지님을 인정한다. 물론 이러한 비판에 대해 드워

킨은 권리론이나 가치론은 거대 담론으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얼마든지 응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비판이 적절한 이유는 본래적 가치가 권리 내지 이해관계와 도덕적 상관성을 갖기 때문이다. 본래적 가치 내지 생명의 신성성을 지닌 존재가 어떻게 권리나 이해관계를 지니지 않을 수 있는가? 생명의 신성성 자체가 하나의 이해관계가 아닌가? 인간이 생명권을 지닌 근본 이유도 인간생명이 신성하기 때문이 아닌가? 안타깝게도 드워킨은 생명의 신성성과 이해관계 내지 권리의 구분에 집착한 나머지, 이들의 상관관계를 철학적으로 천착하지 못하였다.

초기 배아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 생명은 신성하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쉽게 정당화될 수 있겠지만, 생명의 신성성은 정도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믿음은 선택적이라는 그의 상대주의적 내지 다원주의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는 인간생명의 본래적 가치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념은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신념(essentially religious beliefs)'으로 여긴다[7]. 그러니까 임신중절에 대한 입장은 생명의 신성성에 대한 일종의 '종교적인' 해석 차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종교적 신념이다. 종교적 신념이 무엇인가? 그 종교를 믿는 자에게는 절대적이지만,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종교는 인류 전체를 두고 보면 다원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상대적이다. 그의 상대주의는 이중적이다. 하나는 믿음의 선택에 의해 신성성의 유무가 달라지기에 신성성의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상대적이라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신성성의 정도 평가 역시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달려있다는 의미에서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철학적인 의미로 신성성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신성성은 불가침성을 의미한다고 할 때

그는 이미 '인간에 의한 불가침성'을 뜻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당연히 인간의 여건이나 주관적 평가에 의한 신성성의 상대화를 거부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왜 그는 생명의 신성성을 상대화하였는가? 필자가 보기에 그 이유는 일상인들의 상식적인 도덕적 직관과의 정합을 지나치게 의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신성성을 상대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공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 예외적으로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보수주의 입장과 임신중절에 관한 도덕적 후회를 인정하는 자유주의적 입장 모두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두 구분이 윤리적 상대주의의 비난을 받는 드워킨에게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표준적 사례와 예외적 사례의 구분이다. 그도 인정하듯이, 공간, 근친상간, 태아 기형, 산모 생명의 위협 등은 '예외적인 상황'이지 '표준적인 상황'이 아니다.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나 사형제도 등을 살인에 대한 하나의 예외로 인정하듯이, 이러한 경우의 임신중절은 태아 생명권을 인정하면서도 얼마든지 예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산모와 태아의 관계는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 사이의 그 어떠한 관계와도 유비될 수 없는 독특(unique) 관계이기 때문이다. 예외적인 경우를 준거점으로 삼아 표준적인 경우를 평가하는 일은 주객전도이다. 예외 없는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도덕적 정당화(moral justification)와 도덕적 변명(moral excuse)의 구분이다. 한 예로, 생활고로 인해 빵을 훔쳐 먹은 10대 가출 소년을 생각해 보자. 그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옳은가? 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가능하다거나 혹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반면에 어느 누구도 그를 도덕적으로 비난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당화와 변명의 구분이다. 즉, 도덕적 정당화는 어떤 행위에 대한 도

덕적 허용 내지 옳음을 의미하는 반면에, 도덕적 변명은 한 행위에 대한 도덕적 용서를 말한다. 다시 말해, 비록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되거나 옳지는 않지만 여러 여건상 용서할 수밖에 없을 때 도덕적 변명이 성립된다. 도덕적 변명의 경우, 그 당사자에게는 언제나 도덕적 후회가 수반된다. 산모 자신의 건강이나 이미 자라고 있는 자녀에 대한 돌봄 등을 이유로 인한 임신중절은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 변명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 특수한 여건으로 인한 여성의 임신중절 선택을 우리는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말아야지 도덕적으로 정당화 한다면, 인간생명의 신성성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미끄러운 언덕길 논쟁’을 받아들일 경우 신성성의 상대화가 인간생명의 신성성에 대한 위협을 결과하리라는 예상은 비록 논리적 필연은 아니라 할지라도 실천적 필연에 가깝다고 하겠다.

신성성의 도덕적 상대화는 의학, 특히 보조생식의술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인큐베이터, 대리모 자궁, 태아 이식, 인공자궁 등의 생식의술이 점점 더 발달하게 되면, 이제는 태아를 죽이지 않고 단순히 여성의 자궁으로부터 태아를 제거하는 임신중절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까지 이론적으로만 가능했던 ‘태아 제거(fetal evacuation)의 임신중절’과 ‘태아 죽음(fetal death)의 임신중절’의 구분이 실제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12]. 이러한 구분은 곧 여성의 생식의 자유 내지는 임신중절 권리가 태아 죽음마저 포함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태아 제거만을 의미하는지의 도덕적 물음을 낳는다. 보수주의자에게는 이 물음은 큰 의미가 없지만, 임신중절 권리를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는 이 물음에 답해야 한다. 일부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이 갖는 생식의 자유는 부모가 되지 않을 권리

를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니까 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은 “당신이나 태아에게 아무런 해악을 주지 않고, 당신 자궁에서 태아를 끄집어내어 다른 곳에서 9개월 동안 살게 하다가 그 아이를 당신 집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라는 산부인과 의사의 처방에 대해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13]. 여성은 진정 원하는 바는 자신의 자궁으로부터 태아 제거가 아니라, 자신과 모자관계를 형성하는 자녀가 출생하지 않는 태아 죽음이다.

이런 관점에서 맥켄지(C. Mackenzie) [14]는 산모의 생식의 자유 내지 신체적 자율성 개념 속에는 자신과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 존재, 즉 태아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마저 포함되어 있기에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는 태아 죽음을 함의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오버랄(C. Overall) [12]은 일종의 ‘부정적근법(a sort of via negative)’을 채택하여, 태어나 산모가 어떤 권리를 갖느냐가 아니라 어떤 권리를 갖지 않느냐에 주목하여, 산모에게는 태아 죽음으로서의 임신중절 권리는 없다고 주장한다. 즉, 태아가 여성의 자궁을 점유하여 사용할 권리를 지니지 않듯이, 산모 역시 설사 태아가 생명권을 지니지 않는다 해도 태아를 죽일 권리를 지니지 않는다고 그녀는 역설한다. 이렇게 보면 태아 죽음으로서의 임신중절은 여성의 신체적 자율권을 너무 넓게 해석한 것이다.

그러면 드워킨의 가치 논변은 이 물음에 대해 어떤 답변을 줄 것인가? 그의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자면, 인간생명의 신성성은 자연의 창조력과 인간의 창조력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 비록 체외생존가능성이 태아에게 인간으로서의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지는 미결정의 물음이지만, 체외생존가능을 지닌 태아와 갓 태어난 유아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 내지 도덕적 차이를 합당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태아 죽음

으로서의 임신중절 권리는 유지되기 어렵다. “체외생존가능성을 지닌 태아에 대한 임신중절은 유아살해에 해당한다.”<sup>4)</sup> 이것이 우리들의 상식적인 도덕적 직관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은 예외적인 몇몇 경우 임신중절이 허용됨을 인정하는데, 그 시행령은 그 시점을 임신 28주에서 24주로 앞당겨 24주 이후에는 임신중절을 금지하고 있다. 그 시점을 이렇게 조정된 근본 이유는 생식의술의 발달로 태아의 생존가능성 시점이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물론 드워킨은 정부 내지 국가가 체외생존가능성 시점 이후에는 인간생명의 신성성 보호를 위해 임신중절을 규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세 가지 든다 [7]. 첫째, 이 시점이 되면 태아의 두뇌가 발달하여 원시적 형태의 의식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산모는 이미 중절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졌기에 여성의 생식적 자율성 권리가 충분히 보장된다. 셋째, 이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중절을 하는 것은 인간생명의 본래적 가치를 조롱하는 처사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 규제의 정당성에 관한 그의 주장이지, 그의 가치 논변은 태아가 체외에서 생존가능한가의 여부는 도덕적 중요성을 지닐 수 없고 투여된 창조력만이 도덕적 중요성을 지니게 되어, 체외생존가능성을 지닌 태아에 대해서도 임신중절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다. 이는 도덕적 직관과의 정합을 강조하는 그의 주장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신성성에 대한 정말로 위협한 위협이 아닌가?

## V. 맺는 말: 절차적 공정성을 통한 윤리적 정당성

지금까지 우리는 임신중절의 도덕성에 관한 철학적 논쟁의 전제 지형도를 그린 다음, 드워킨의 가치 논변이 임신중절의 도덕성에 관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윤리형이상학에 속하는 사람 논쟁은 물론이거니와 실천 윤리학에 속하는 권리 논변, 여성 윤리, 그리고 몇 가지 윤리이론들은 각각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아직 하나의 입장으로 수렴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드워킨의 가치 논변이 이러한 문제에 관해 온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드워킨의 가치 논변은 임신중절의 도덕성에 관해 다분히 여성 윤리 편에서 있지만, 그 중심 주장은 열려져 있다. 왜냐하면 생명의 신성성이나 본래적 가치 개념은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종교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철학자가 지적하듯이, “임신중절에 관한 서로 다른 여러 분파들이 합의하고 있는 바는 임신중절 물음은 응용윤리학에서 다루기가 가장 어려운 이슈 가운데 하나라는 점과 20세기 후반 공공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곤혹스러운 문제라는 점이 전부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1]

하지만 임신중절의 도덕성에 관한 다양한 입장의 존재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 이것이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이다. 특정 종교를 국교로 하지 않는 한, 생명의 신성성에 관한 단일의 절대적 입장은 불가능하다. 존 롤스의 용어를 원용한다면 이는 ‘합당한 다원주의(reasonable pluralism)’이다[15]. 합당한 다원주

4) 참고문헌 10번(pp. 88-89). 하지만 이들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체외생존가능성이 임신중절의 허용가능성 경계를 긋는 분수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첫째, 체외생존가능성은 태아 자체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단지 의술의 발달에 따라 달라진다. 둘째, 체외생존가능성은 단순한 ‘캠브리지 변화(Cambridge change)’에 불과하다. 즉, 체외생존가능성은 실재(entity)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다른 실재, 즉 산모와 맺는 관계의 변화를 가져다줄 따름이다. 셋째, 어떤 존재가 어떤 특정 환경 밖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는 그러한 환경을 빼앗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이유를 제공하지 않는다.

의 사회에서도 임신중절에 관한 법률이나 정책은 제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일상 삶에서 선택하지 않음도 하나의 선택이듯이, 공공정책에서도 법률이나 제도의 없음도 하나의 정책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신중절에 관한 법이 없다면, 이는 곧 임신중절의 허용을 뜻한다.

그러면 서로 다른 합당한 도덕적 입장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법이나 제도의 제정이 가능한가?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윤리적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윤리성에 근거하여 법률이 제정되고 정책이 입안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드워킨이 강조하였듯이, 임신중절에 대해 건전한 시민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 직관이 온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태아가 사람이나 아니냐와 상관없이, 태아는 사람으로 발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인위적 창조력과 자연의 창조력이 결합된 신성한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생명의 신성성을 모독하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적어도 태아가 체외생존가능성을 지니는 시점 이후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중절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를 일반화시켜 임신중절을 무차별적으로 허용하는 잘못을 범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윤리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에서는, 롤스의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 이념을 우리는 따라야 할 것이다. 즉, 시민들은 ‘합당하지만 서로 양립 불가능한 포괄적 교설들’을 지니고 있다손 치더라도 정치적 영역에서 특정의 정의관에 합의하게 된다는 것이 중첩적 합의의 이념이다[15]. 마찬가지로 임신중절의 도덕성에 관해서도 시민들이 양립 불가능한 서로 다른 입장을 갖는 것은 합당하다. 그럼에도 공공정책의 차원에서 법률이나 정책을 제정하는 데 있어 중첩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우리는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16].

## REFERENCES

- 1) Davis N. Abortion, eds by Becker LC, Becker CB. Encyclopedia of Ethics, Vol. 2, 2nd ed. New York and London : Routledge, 2001 : 2-6.
- 2) Jaggard AM. Abortion rights and gender justice worldwide: an essay in political philosophy, eds by Tooley M, Wolf-Devine C, Devine PE, Jaggard AM. Abortion: Three Perspective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120-179.
- 3) Tooley M. Abortion: why a liberal view is correct, eds by Tooley M, Wolf-Devine C, Devine PE, Jaggard AM. Abortion: Three Perspective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3-64.
- 4) 이혜정. 도덕 이론과 임신중절. 철학 2004 ; 78 : 291-317.
- 5) 김미영. 낙태논쟁의 권리 프레임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여성주의의 비판. 한국여성학 2011 ; 27(4) : 1-35.
- 6) Macklin R. Abortion. II. A. Contemporary ethical perspectives, ed by Reich WT. Encyclopedia of Bioethics, Vol. 1. New York : Simon & Schuster Macmillan, 1995 : 6-16.
- 7) Dworkin R. Life's Dominion: An Argument about Abortion, Euthanasia, and Individual Freedom (1994). 박경신, 김지미 역. 생명의 지배영역: 낙태, 안락사 그리고 개인의 자유. 서울 : 로도스, 2014.
- 8) Little M. The moral permissibility of abortion, eds by Welman CH, Cohen A. Contemporary Debates in Applied Ethics, London : Basil Blackwell Publishing, 2005 : 27-40.
- 9) Dworkin R. Sovereign Virtue (2000). 염수균 역. 자유주의적 평등. 서울 : 한길사, 2005.
- 10) Wolf-Devine C, Devine PE. Abortion: a communitarian pro-life perspective, eds by Tooley M, Wolf-Devine C, Devine PE, Jaggard AM. Abortion: Three Perspective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65-119.
- 11) Jaggard AM. Abortion and a woman's right

- to decide. *Philosophical Forum* 1973-74 ; 5(1-2) : 347-360.
- 12) Overall C. *Ethics and Human Reproduction*. Boston : Allen & Unwin, 1987.
- 13) 김상득. 페미니즘 입장에서 본 임신중절. *범한 철학* 2012 ; 67 : 287-313.
- 14) Mackenzie C. *Abortion and Embodiment*. *Aust J Philos* 1992 ; 70 : 136-156.
- 15) Rawls J.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 16) 김상득. 복제배아의 도덕적 지위 물음: 자아동 일성 입론. *철학연구* 2002 ; 57 : 321-340.

## A Critical Examination of Dworkin's Value-Argument Concerning Abortion<sup>\*,\*\*</sup>

KIM Sang Deuk<sup>\*\*\*</sup>

### Abstract

Abortion raises two distinct but related ethical issues: one concerns the moral status of a fetus; the other concerns the conflict between the rights of a fetus and those of a pregnant woman. While conservatives claim that a fetus has a right to life, which outweighs a woman's right to bodily autonomy, liberals who support abortion rights focus rather on the meaning of pregnancy for women. Dworkin argues against both the liberal and the conservative views, claiming that each is inconsistent with our considered moral judgements. He claims that a fetus has, not rights, but rather intrinsic value, and different views on the intrinsic value of fetal life give rise to different views on the morality of abortion. This argument from Dworkin, which I call the "value-argument," is critically examined in this essay. While the value-argument helps to explain our considered moral judgements concerning abortion and integrates the two aforementioned problems into one, the "intrinsic value problem," it fails to resolve the ethical problem of abortion. Rather than justifying its central claim that a fetus has some intrinsic value, Dworkin presupposes it as a working hypothesis. Nor does he provide objective criteria for evaluating the intrinsic value of a fetus. As such, Dworkin does not present a unique position on the ethics of abortion but rather explains why differences of opinion concerning abortion arise. This critical examination of the value-argument concludes that rather than solving the moral problem of abortion Dworkin merely provides an analysis of it.

### Keywords

abortion, R. Dworkin, value argument, feminism, moral status of fetus

---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Research Base Construction Fund Support Program" funded b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in 2018.

\*\* This paper is a revised and supplemented manuscript published by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entitled "A Study on the Morality of Abortion: Focusing on Dworkin's Value Argument" (Korea University Medical School, May 25, 2018).

\*\*\* Department of Philosoph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